

# 장흥 관산읍·대덕읍 주민들 “차라리 면으로 환원을”

### 균형발전 위해 승격...稅 부담 등 되레 ‘불이익’

장흥군 관내 관산읍과 대덕읍이 지방자치법상 읍 설치기준에 훨씬 못 미친 인구를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어 행정체제 개편 논란이 일고 있다.

관산읍과 대덕읍 인구는 각각 6천 580명과 4천350명(2007년 12월 31일 기준)에 불과해 지방자치법상 읍 설치 기준인 인구 2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산과 대덕이 읍으로 승격된 것은 지난 1980년 12월 1일로 당시 내무부가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규모가 큰 면 소재지를 읍으로 승격시켜 오

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주민세 부담이 늘고 정주권·오지개발사업 등 낙후지역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을 승격이후 오히려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김모(53)씨는 “읍으로 승격된 지 30년이 다 되어 있으나 도로 확장 등 투자는 이뤄지지 않은 채 비싼 세금만 부담하는 등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지난 2000년부터 대덕읍 변경회를 중심으로 일부 주민들이 관

련 부처에 면으로 환원해 달라는 청원을 냈으나 지방자치법상 격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장흥군도 행정체제가 읍에서 면으로 격하될 경우 계가 줄어드는 등 행정기구 축소와 군 위상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행정체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자체장이 시행토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전국에서 읍에서 면으로 환원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영산포 유채꽃 물결

나주시 영산포대교 아래 영산강변 6만여㎡에 유채꽃이 만개했다. 나주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영산포 선창과 유채꽃단지 일원에서 ‘영산강 흥어 축제’를 개최한다. /위직랑기자 jwji@

## 최경주 해변 골프대회

### 5월 4일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제 2회 최경주 해변 골프대회’가 최경주 선수 고향인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열린다.

완도군은 완도해변 가로공원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장보고축제’ 기간인 다음달 4일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특별이벤트로 최경주 해변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이달 말까지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4일 하루 동안 장다, 니어핀, 버키샷, 퍼팅 등 4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룬다.

이와 함께 유명 모래조각 작가들이 장보고와 바다를 주제로 참여하는 명사십리 모래조각 작품전을 비롯해 가족 모래성쌓기 체험장이 마련된다.

김중식 완도군수는 “이번 대회는 완도출신 골퍼 최경주 선수를 활용한 지역 마케팅과 골프 애호가들의 축제 참여로 건강의 섬 완도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해변 골프대회가 완도군 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보고 축제는 ‘해신의 바다에서 춤추는 빛의 판타지’란 주제로 다음달 2일부터 사흘간 개최된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여수 사도~남도 인도교 백지화 논란

### 기공식까지 해놓고 포기...행정 신뢰 상실

### 市 “공룡발자국 세계유산 등재로 불가피”

여수시가 기공식까지 치렀던 사도(沙島)~남도(狼島) 인도교 가설 공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14일 “사도와 남

도를 잇는 길이 430m의 인도교 가설 공사가 이뤄질 경우 이 일대에 있는 공룡발자국의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설 공사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도~남도 인도교 가설사업은 지난 2005년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당시 김충석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까지 개최해 행정의 일관성 상실과 함께 이미 확보한 68억원의 관련 예산 활용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수시는 인도교 가설 공사 예산으로 확보한 68억원으로 사도에 공룡화석지 방문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도와 남도에

있는 공룡발자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에 등재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미 가설된 사도와 중도를 잇는 교량은 친환경적으로 보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는 사도와 남도, 백야도 98만3천㎡를 국내의 민간자본 1천 700억원을 유치해 2012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도와 남도, 백야도는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돼 국내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특히 바다 가운데 모래로 쌓은 섬 같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사도는 매년 3~5월 10여 차례에 걸쳐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이 연출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여수=박만규기자 ykpark@

## 문화재 발굴 조사 마무리

## 나주 송월지구 본격 개발

### 공정률 14% 기록

그동안 문화재 발굴 조사로 공사 추진이 지연됐던 나주시청 앞 송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공사가 재개된 나주 송월지구는 현재 14%의 공정율을 기록하고 있다.

송월지구는 시청 앞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와 더불어 그동안 나주

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오는 2009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291억8천여만원이 투입되는 송월지구 개발 사업은 29만7천600㎡의 택지가 조성된다.

장주일 나주시 도시과장은 “지구 내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계획 기간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 “깨끗한 잠자리 맛있는 먹거리 보장”

## 화순군 관광객 맞이 준비 끝

### 郡, 위생환경 점검

“깨끗한 잠자리와 맛있는 먹거리를 보장합니다” 화순군이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깨끗한 숙박과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화순군은 지난달 숙박시설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적

인 환경 조성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침구류 세탁과 자외선 살균기 설치, 식수 관리 등을 조사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남은 음식 사용 안하기, 개인용 그릇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홍보용 도자기를 제작, 보급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실종·납치 소동 초등생 2명 경찰이 찾아내 무사 귀가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로 차량 밑에서 밤을 새던 초등학생 2명이 무사히 가족 품에 인계됐다.

지난 10일 밤 11시50분께 초등학교 3학년 A모군(10) 등 2명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한 영광경찰서(서장 양성진)는 관내 경찰관을 총동원, 수색과 탐문 수사를 벌여 다음날 새벽 1시17분께 A아파트 주차장에 주

차된 봉고차량 밑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이들은 PC방에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다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자고 있었던 것.

가족들은 “경찰이 이들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영광=조익삼기자 ischo@

## 고흥군 우수 보건기관 전남도 건강증진 평가

고흥군이 전남도 주관 2007년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 보건기관으로 선정됐다.

고흥군은 17개 부문 34개 항목의 평가에서 관철염 수중 운동교실, 노인 건강장수 체조교실, 농어촌 노인 건강 증진사업, 영양 시범학교 7개교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주지중기자 gju@

무등산 자락의 푸른보수 맑은 시냇물 자연IN 전원주택마을

#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자연IN

부동산연구소 062-431-6070-2

BRAVIA

## 고객감사 大 축제

최고의 품질로 사랑하는 Full HD TV BRAVIA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 100% 100% 100%

2. 100% 100% 100%

SONY